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모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교회설립 13주년 기념 메시지

열세 살 된 우리의 비전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선교사 100명 파송, 교회학교 학생 10,000 명 출석, 빈약한 자 구제-

서울교회 설립13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과 눈물을 뿌린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십대(thirteenth) 로 접어 든 서울교회는 이제부터는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젊은이답게 큰 발자국을 내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2010년까지 해외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치세미나와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복음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비전 2020 운동과 기독교 교도소 운동,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단순한 물질 지원 뿐 아니라 목회와 신학적인 면까지 지원하여 민족 복음화의 틀을 제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서울교회는 교회학교 학생 일만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온 교인이 100% 교회학교 학생이 되어 내실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계단식 공과책을 개발하여 한국교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상으로 확실히 세우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 센터를 설립하여 빈약한 자 구제에 앞장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탈북난민, 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풍요 속에 울고 있는 자들의 벗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것처럼 선교 교육 구제의 세 기둥을 더욱 든든히 세우고 국내외에는 복음의 센터가 되며 어머니의 젖줄과 같이 생명의 요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등대가 되고 국가사회의 구원선이 되며 국제적으로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될 수 있기를 13살 생일날 다짐해봅니다.



교회설립13주년 기념주일 추수감사주일

주일예배 시간에 성찬예식, 찬양예배 시간에 집사·권사 임직식 가져

오늘 교회설립13주년 기념주일과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3년 전 집 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대치동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하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풍년의 축복을 주셨으니 그 감사와 기쁨이 두 배로 더하다.

교회는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일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가지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고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지난 5월 부터 훈련과 기도로 준비해 온 피택집사 46명과 피택권사 39명의 임직식이 있다. 이 기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 확정

12월3일 한기총·교회협의회 공동발표

하나님께 바른 기도와 바른 신앙고백을 추구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을 헌의한 지 3년 만에 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협의회(NCC)전문 위원회를 구성, 각 각 수차례 연구모임을 가진 결과 재번역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두 기관의 전문 연구위원(위원장 이종윤)은 12월 3일(금) 우리교회에서 합동위원회 모임을 갖고 재번역 안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축하하게 된다. 재번역 안은 양 기관의 실행위원회를 거쳐 산하 회원교단에 통보하고 이를 내년 각 교단 총회에서 허락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교회 김장 한다

12월 7(화)~9(목) 3일간

날씨가 점점 추워져 겨울 초인에 접어든 지금, 교회는 일동 준비를 시작하며 오는 12월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김장을 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하며 성도간의 교제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단신>

(1) 군복무자를 위한 12월 중보기도회

12월5일(주) 오후 3시30분 102호

(2) 3사단 세례 지원 방문

12월11일(토) 오전 7시 교회출발

당일 3사단과 자매결연식과 진중 세례식을 이종운 목사 집례로 진행한다.(찬양대는 호산나가 맡는다)

교회홍보 영상 상영

오늘 찬양예배 시작 전 4시 30분에

서울교회 홍보위원회(위원장:오정수)에서는 교회 홍보 영상물을 제작 완료하고 28일 주일 오후4시30분부터 약 8분간 전 성도를 대상으로 상영키로 하였다. 그동안 준비하며 제작하는 과정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WILL 커뮤니케이

션(대표:이성근 집사)에서 전적인 후원을 하였다.

교회 홍보 영상물은 앞으로 서울교회 등록하는 새가족들과 김치세미나 등에서 교회홍보 영상물로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주일 날 어르신들 쉼터 마련

주일 오후 1시부터 102호를 쉼터로 사용키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각 부서 공간이 협소하여 그동안 우리교회를 출석하시는 어르신들의 쉼터 공간이 없었다. 교회는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온돌 난방이 되는 102호실을 주일 오후1시부터 노년을 위한 쉼터 공간으

로 배려하게 되었다. 각 기관 부서에서는 경로효친의 정신으로 주일날 102호실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천국일꾼 양성 - 전도학교를 마치고...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최미아 집사(전도학교11기, 5교구, 피택권사)

부족한 저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전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택권사가 되어 전도학교 11기에서 교육을 받으며 70인 전도대 목요축호전도팀에서 전도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전도는 저와는 별개로 여기고 봉사과 순종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을 받는 중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 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은마 아파트의 벨을 누를 때마다 집에 제발 아무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 떨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던 좋은 반응과는 달리 거절과 냉대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저는 마

음이 더 담대해져 갔습니다.

정말 교회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했습니다. 초등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공부시간에 떠들며 방해하는 어린 영혼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전도실습을 통해 그 귀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못한 부족한 저를 발견하고는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전도하던 중 하루는 은마 30동 앞에서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벨을 누르고 서울교회에서 왔다고 하니 거절 받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들어오라고 하시어 오히려 무척 떨렸습니다. 그 분은 자녀문제로 교회 나오고 싶어 하였습니다. 저희는 새로 이사 오셨는지 물으니 거기 산지 12년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할 지를 생각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녀유학을 보내야 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하여 은가족이 이번 주 등록하고 목사님 기도 받고 가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침내 그 어머니가 기쁘게 먼저 등록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곧 등록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현관에 다른 교회 교패가 붙은 집을 벨을 눌러 어린 학생이 있으면 가까운 우리교회로 보내주시면 잘 이끌어 드리겠다고 하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가정으로 예전에 살던 사람의 교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데려오려고 집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그 집 문 앞에서 30분을 기다려 교회로 데려왔는데, 그 때 제 기쁨은 너무 컸으며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집 가족 모두가 등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귀한생명! 귀한 열매! 저는 집에 와서 그 가족들이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남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너무 기쁘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이제는 사람만 보면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게 되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우리 전도하는 신앙 선배들이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저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전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전도대원들과 중보기도팀원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웃의 등대 되고 국가의 구원선

창립 13주년을 축하합니다!



정태봉 목사(서울강남노회장)

서울 교회 설립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설립된 서울교회가 어드렛 설립 1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교회는 처음 설립될 때부터 이 중운 목사님의 뛰어난 영적 지도력을 평소 존경하며 따르던

많은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먼저 세우고 그 후 간절한 기도 끝에 이 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모셔 오셨는데, 「서울교회」라는 이름부터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체를 내다보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향해 복음전파 및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신앙고백이며 결단인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교회를 처음 설립될 때부터 기대 가운데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오늘날 서울교회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많은 선교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제3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교회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그대로 앞으로도 50주년 및 100주년을 향해 더욱 더 부흥함으로 서울 강남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이 중운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중은 목사(장신대 총장)

서울교회의 창립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 위에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

나님 나라의 새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거듭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중운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이용선 장로(원로장로)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서울교회는 그동안 한국의 교회들을 향드레 나갈 진리의 터가 되길 갈망하면서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로님들은 뱀꿈을 설치면서 주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뛰었고, 권사님들은 자신의 나이도 있는 채 젊은이 못지 않은 힘을 내며 눈물나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서 속히 에베당을 헌당하여 거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목청 높여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찼고 감사의 찬송이 우렁차게 메아리치며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증가하고 교회는 활기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서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날려야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

랑으로 하나되어 온 성도가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되며

세계의 나침반 되는 교회

임직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27)

양헌경 집사(1교구)



힘들 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그 오른손을 펴시어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께 만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자를 안수집사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지난 날 보다 더 큰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

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남아있는 불순종, 교만함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순종과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생각대ろ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공경하는 자세로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기

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무작정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사용하시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중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중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4:11~12)

이강인 집사(11교구)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지난 5월 안수집사로 피택을 받게 하셨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안수집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교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엇보다 교회 앞에 순종하며 안수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간 교육을 받으며 성경개론과 장로교 신조 등 성경의 기본 교리를 많이 배웠지만 제 마음에 가장 감동으로 다가

온 것은 안수집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무엇보다 인성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격이 다소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저는 이것은 의로운 성격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이 늘 저의 신앙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쓴뿌리들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기도를 할 때마다 급한 성격을 고쳐달라고 막연히 기도했는데 안수집사 교육을 받으며 안수집사의 덕목 가운데 화해와 권면과 용서가 있음을 알고 이번 만큼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평화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구약 문제를 풀면서 나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하찮고 외식적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도록 노력하고 깨달은대로 사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므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물질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를 신뢰하므로 순종하는 안수집사가 되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4:8)

김영식 집사(13교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믿고 온 교회가 기도 하던 중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2005년 예배당 헌당을 앞두고 온 성도가 소망을 가

지고 있을 때 부족한 저를 권사로 임직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9명의 권사로 교회의 택함을 받아 6개월간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결단하고 다짐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충성하며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39명의 권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항상 힘쓰겠습니다.

서울교회 설립 당시에 원로 권사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모든 일에 앞장서

서 겸손의 옷을 입고 헌신하는 권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이제는 더욱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들고 이웃을 섬김으로 기도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주시므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봉사자로, 협력자로서 쓰임 받는 참된 일꾼 되기를 소원 합니다.



아름답다 서울교회여!

하나님도 긴장하신 13년 세월

김광신 장로(당회 서기)



광야 길! 침도 삼킬 수 없는 시간들을 순종의 무릎으로 달려온 때를 기억합니다.

13년전 그렇게 막연하고 앞이 캄캄하였고, 가없는 양들이 몸 둘 곳이 없어 발을 구르자

급하신 하나님이 더 긴장하신 듯는 현동에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하는 빌딩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의 주인이 서울교회 가족이었기에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교회로 사용되도록 허락

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는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믿음을 실상으로 바꾸어 오늘의 대치동 예배당 시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잠자는 시간에도 안온함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무시지 못하시는 열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찬 마루방에서도 곤한 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온 13년의 영상을 돌아보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길에서 서울교회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 같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그 축복의 일원이 된 것을 자손대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

제를 바라보는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하고 싶고, 또 다른 계획으로 축복된 내일이 주어질 것에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온 성도의 믿음을 모아 순종을 약속합니다.

가정마다 영육 간에 복에 복을 더하시므로 넉넉히 성공할 것입니다. 행복자인 서울교회는 그 행복을 값없이 온 누리에 나누어주는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13주년이 되어야하겠습니다.



먼지가 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서울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시편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연약한 인간이 불가피한 고통을 견디어내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면한 고난 앞에서 '무슨 까닭인가를 알 수 없을 때에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워 하고, 자신의 고통이 어떤 의미와 원인을 가진 것임을 확인할 때 비로소 고통의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찌기 우리에게 고난 당함의 유익함과 그 의미를 시편의 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지가 되도록 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좋은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세움 받은 서울교회의 첫 창립예배에서였습니다. 복잡하고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굴종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욱 단련받고 정금 같아진 이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였고 그것은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량주의와 양적 성장에 치우친 일부 대형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교회는 다시 한번 청교도의 무리가 되기를 자청했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갱신과 성숙의 메시지를 타전하고 국내 목회자들을 모셔 철저한 말씀연구에 힘을 기울이는 <목회자 세미나>에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의 목회자

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와 비전은 국내에 그치지 않고,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교회의 갱신운동을 체험하고 확산시키는 <김치 신학세미나>로 이어졌으며, 전세계적인 복음과 선교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교회는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하고 애쓰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혼탁한 성문화에 맞서며 <순결사약식>을 제안했고,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국의 군장병들을 복음화하는 <비전 2020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탈북 난민 보호 UN 청원 운동>의 서명운동을 범세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법제화하고, <목사 장로 안식년제>를 국내 최초로 처음 채택했으며, 특별기도회인 <홍해작전>과 <사명자대회>를 해마다 갖고, 실제적인 영적 각성과 훈련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의 초석이 되고자 헌신한 서울교회는 한국교회의 양심과도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고난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년을 돌아볼 때 서울교회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요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저마다 주어진 사역에 확신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훈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향해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오늘, 서울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며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종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찬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소정(편집부)



13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어...



음중호 집사(2교구)

저는 대청부가 함께 출발한 '92년 시작 단계부터 서울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대청부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부흥과 성장을 하면서 대학부와 청년부로 나뉘게 되었

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와 내인은 72년 포레모임으로 만나서 대학부에서 임역원으로 봉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98년 청년부 여름수련회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서로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저희는 수련회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수련회 이후 교제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99년 한해 동안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함께 봉사를 하였으며 임기를 끝낸 후 '99년12월16일 이종운 목사님의 주례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청년의 때에 이종운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치르게 하시더니 이제는 두 자녀 준용, 유진까지 선물로 주시니 지금도 가끔씩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의



현재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우리를 있게 하신 서울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때를 바친 서울교회!



김민철 성도(청년부)

고향이 포항인 제가 서울로 와 대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학교 앞에서 탁구장을 하고 계셨던 이봉선 집사님의 권면으로 서울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지 13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때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93년 대학부 겨울 수련회에서 대표기도를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2002년 청년부 여름수련회에서 대표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이마가 넓어진 걸모습 뿐 아니라 속사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껍떡이의 신앙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초등학생 정도는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회를 다니는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KBS에 입사하여 기자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 서울교회는 저에게 고향집 못지 않은 푸근한 아버지 집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청년부 지체들과 '서울교회 1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 산더미같은 자료들 속에서 무더운 여름밤을 밝히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렇게 서울교회는 저의 청년의 때를 온통 바친 곳기에 더욱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서울교회!

순례자가 오늘로 672호를 발행하며 1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3년을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서울교회의 모든 사역과 함께 뛰어올 수 있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9일(월) 서울여대 총장인선 위원회, 30일(화) 한국 기독교 학술상 시상, 12월 2일(목) 연세 조환기도회에 참여하고 3일(금)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 선포식을 갖는다.
- 이사: 김민철 집사, 최위훈 집사(2교구) 용인시 원광면 파향리 111번지 T.031-323-1905
 - 최무순 권사(2교구) 신사동 547-8 유로미아파트 19동 603호 544-3536
 - 나행수 성도 김순주 집사(3-16) 강남구 대치동 912번지 포스코아파트 1021704
 - 최원 권사 김승환 집사. 함은정 성도(4-11)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1703호
- 개업: 1교구 홍성모성도(홍승전 집사, 황정임 권사) 분당 정자동, 워릭 영이학원 개원 T.031-782-0946
- ☞ 두녀: 김재선 손여민 성도(5교구 논변역 집사 김원정 권사의손녀)
 - 두녀: 김영철 정지원(6교구)
 - 두녀: 오지은 성도 (오길택 집사 박정실권사 장녀)
- 주간 식당봉사: 발립남선교회(11월28일) 안도래 날선교회(12월 5일)
- 금주의 식사: 피택집사일동
- 고밀 재가: 피택권사일동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일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82(기독교방송) 매주 수요일 7시 · KBS(로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복음지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 4-주일 저녁 9시5분
라디오	· HLK 98.1 MHz(기독교 방송) 삼성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30분 · HLXN 106.9 MHz(국통 방송) 생명을 믿으면 매주 금요일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연말 연시를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피택집사·권사들의 영성과 임직식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